

창업자 특성이 자기효능감과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창업 전 실무경험과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천희¹, 전달영^{2*}

¹충북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²충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Effects of Entrepreneur Characteristics on Self-efficacy and Business Performance : Focused on Moderating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xperience in Business before Starting a Business

Chun-Hee Lee¹, Dal-Young Chun^{2*}

¹Doctoral Program,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²Professor, School of Busines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최근 연구흐름은 창업에 대한 성공은 창업자의 특성뿐만 아니라 무엇인가를 이루어 내는 자신감인 자기 효능감에 따라 성과가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첫째, 창업자 특성이 자기효능감과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둘째, 창업자의 실무경험과 창업교육기간에 따라 창업자 특성이 자기효능감에 주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조절효과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창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제외한 274개의 일반 독립점포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구조방정식으로 연구모형과 17개의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창업자 특성 중 심리적 특성인 성취욕구와 위험감수성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둘째, 창업 전 실무경험과 창업교육이수에 대한 조절효과를 확인해 본 결과, 창업 전 실무경험은 기술적 능력과 마케팅 능력을 통하여 자기효능감을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창업교육은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기술적 능력, 마케팅 능력 등과 더불어 조절효과를 만들어내었다.

주제어 : 창업자 특성, 자기효능감, 실무 경험, 창업 교육, 창업 성과

Abstract In academia, lots of startup-related research are conducted to improve startup performance. Most of them are concerned with entrepreneur characteristics, capabilities, and entrepreneurship. In particular, self-efficacy of entrepreneur is emphasized to improve startup performance in addition to entrepreneurial capabilities. Thus, the main research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impact of entrepreneur characteristics is investigated on self-efficacy and startup performance. Second, the moderating effects of business experience prior to startup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are analyzed between entrepreneur characteristics and self-efficacy. Finally, managerial strategies are suggested to maximize startup performance via self-efficacy. 274 samples were collected from independent startups. The proposed research model and 17 hypotheses were verified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echnique. The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such as achievement desire and risk tolerance positively influenced on self-efficacy. Second, business experience prior to startup showed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s on self-efficacy with technological and marketing capabilities.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Third, entrepreneurship education showed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s on self-efficacy with achievement desire, risk tolerance, technological and marketing capabilities.

Key Words : Entrepreneur Characteristics, Self-Efficacy, Experience in Business, Entrepreneurship Education, Business Performance

*Corresponding Author : Dal-Young Chun(dychun@cbnu.ac.kr)

Received January 2, 2019

Revised January 31, 2020

Accepted February 20, 2020

Published February 28, 2020

1. 서론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무역장벽이 없어지면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고 세계적인 추세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예외 없는 저성장시대가 도래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기존 경제 활동 인구의 퇴직, 고용 없는 경제 성장, 경기 침체 등의 열악한 경제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실직 및 청년 실업 등의 문제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고용확대 및 실업률 감소를 위한 수단으로 창업을 강조하고 있다. 창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자금, 교육, 컨설팅, 시설지원 등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최근 청년, 실직 및 은퇴자들은 본인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창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창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

그러나 국제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신규업체 수 대비 폐업률은 89.2%로 2016년 77.7%, 2017년 87.9%보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2], 이는 정부의 다양한 창업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 성공률과 창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원인 분석과 창업 성공 확률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창업자의 역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창업자 특성과 역량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3]. 정성한·김해률(2001)은 창업의 성공 요인으로 창업자 특성, 환경 특성, 점포 특성 등의 요인이 있으며 그 중 창업자 특성이 소상공인의 창업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4]. 하지만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프랜차이즈 및 전체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연구되었으며, 창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독립점포만을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일반 독립점포의 경우 가맹본부의 노하우, 물류, 마케팅 지원을 받는 프랜차이즈 점포와는 경영 방식과 특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특히 일반 독립 점포는 창업자 스스로 모든 경영활동을 담당하기 때문에 창업자의 역할은 성과에 더욱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독립점포만을 대상으로 창업자의 특성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창업에 대한 성공은 창업자의 특성뿐만 아니라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자신감인 자기효능감에 따라 성과

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자기효능감은 반복적인 성공의 경험, 대리 경험, 창업에 대한 교육과정 등에 의해서 형성된다[5]. 이러한 측면에서 창업 교육뿐만 아니라 관련 실무 경험 정도에 따라 창업 성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창업자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창업성과 간에 있어 창업교육 및 실무경험이 미치는 조절효과에 대한 영향 여부를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이부분이 기존 연구와의 차별적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창업자의 성공은 창업자의 특성과 자기효능감, 창업교육 여부, 실무 경험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 각 변수간의 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첫째, 창업자 특성이 자기효능감과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둘째, 창업자의 실무경험과 창업교육기간에 따라 창업자 특성이 자기효능감에 주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조절효과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창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제외한 274개의 일반 독립점포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제안 연구모형과 연구가설들을 검증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창업자 특성

창업자는 창업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창업 전 사업 시기를 탐색, 인식, 습득하여 아이디어를 시장가치성 있게 변환한다. 또 이를 위해 자본,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기술을 습득하여 위험 또는 도전을 감수하며 운영 자원을 효율적으로 계획 및 조직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6]. 창업자는 창업자의 사업적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사전 정보 조사, 교육 등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끊임없는 도전과 희생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창업자의 개인적 차별적 특성과 역량 그리고 외생적 변수의 영향으로 창업 후 경영성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창업자의 특성은 창업 성공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창업자 특성을 인구통계학적 자료를 통해 성별, 학력, 연령, 업무 경험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배경적 특성과 일에 대한 성취 욕구, 통제 위치, 모호성, 위험 감수성에 대한 인내성 등의 심리적 특성으로 나뉘볼 수 있다. 과거 창업자 특성에 관한 논문들은 개인적 특성, 심

리적 특성, 행위적 특성에 관하여 주로 연구하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기술적·행동적 특성 및 역량을 중심으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7].

또 다른 연구(Sandberg and Hofer 1987)에서는 창업자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창업자의 특성, 창업자 전략, 사회 산업구조 등을 통해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이 세 가지 변수들이 복합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8]. 그 후에 구체적인 영향요인들의 구성은 다르지만 창업자 특성, 전략, 산업구조의 맥락으로 창업자의 성과를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계속되었다.

같은 유형의 대표적인 국내 연구(예: 강종구·정형권, 2006; 경종수·이보형, 2010)에서는 창업자 성공과 창업자 실패를 가르는 영향요인으로 크게 창업자 특성, 창업자 전략, 사업자 환경, 운영관리를 제안하였다[9,10]. 특히, 황보윤(2009)은 심리적 특성들 중에서도 성취욕구, 위험감수성향, 모호성에 대한 인내력 등이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11].

이러한 측면에서 심리적 특성으로 적극성에 의한 성취욕구, 창업동기, 혁신과 창의성, 모호성에 대한 인내, 위험 감수성 등이 창업 성과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4].

2.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일련의 행동들을 조직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자기 확신을 의미한다[12]. 즉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학습자가 가지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자기효능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대한 확신 혹은 자신감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성공에 필요한 신체적, 지적, 감정적 원천을 움직이게 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 할 수 있다[13].

결국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가지 있는 목표를 향하여 해낼 수 있다고 자신을 믿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고, 개인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고, 주어진 업무나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이자 일종의 자신감이다[14].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의 경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며 당면한 업무에서 집중하고 지속성을 높이므로 높은 성취수준을 보일 것이다[15].

김진옥(2013)은 실증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

인은 더 크고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더욱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며, 높은 성과를 통해 높은 보상을 기대하며, 주어진 제약 속에서도 추구할 가치가 있는 기회에 주목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여주었다[16].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이 업무성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직무소진을 경험하게 되면,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자신감의 상실로 직무 만족, 조직 몰입과 같은 개인 태도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반면에 정병현(2015)은 자기효능감이 낮은 개인이 과업 초기에 난관이나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여 쉽게 포기하거나 최선이 아닌 결과에 만족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17]. 낮은 성과를 기대하여 결국 부정적인 보상을 예상하게 되며, 주어진 제약들을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인식함으로써 노력해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는 포기상태를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수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사업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위험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도전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들의 자기 확신에 따른 자발적인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이 필수적이다[18]. 창업자의 자기효능감 즉 창업에 대한 자신감은 예비창업자가 갖추어야 할 주요 선행조건 중 하나이다. 창업자기효능감의 지각이 높은 예비창업자는 경쟁적이고 어려운 여건의 창업환경을 기회가 충분함 것으로 지각하고 위험, 역경, 불확실성 등이 높은 창업 현실에서도 유능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반면, 실패의 가능성은 적게 지각하며 도전적 상황을 자기 의지를 펼쳐나갈 좋은 기회라고 지각할 것이다[19].

또한 자기효능감의 이러한 특성들은 창업 프로세스에서 수없이 부딪치는 역경들을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돕는 요인이 되는데[20],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목표 달성을 높게 만드는 장애가 생기거나 자기의 과업 방식에 부정적인 의견이 발생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자기 자신의 목표 달성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21].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창업에 관심이 많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창업지원제도, 창업프로그램, 창업교육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22]. 결국 자기효능감이 창업의 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 즉, 개인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정도에 따라 창업 교육 및 훈련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창업자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효과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공해야 성공적인 창업 성과가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23].

또 다른 연구(양준환 2015)에서는 자기효능감은 기업가적 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 역할을 하는데[24], 기업가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감 보다 구체적인 의미인 자기효능감이 높아야 하며 스스로 변화를 추구하며, 가능성에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2.3 창업교육과 실무경험

창업교육은 종업원으로서 창업 및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 사업을 하려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 또는 자영업(self-employed)을 할 수도 있는 잠재적인 기업가 및 기업 소유자에게 사업 이상의 것을 가르치는 것까지 포함한다[25]. 즉, 실제로 사업 준비를 하거나 운영을 안하더라도 잠재적 창업자로 경영에 대한 과정을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26]. Garavan and O'Connell(1994)는 창업교육을 기업가정신에 필요한 지식을 획득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상황분석 및 계획 수립능력을 획득하며, 창업가적 추진력과 자질, 능력을 확보하고, 여러 분석적 기법을 통한 위험회피 기법을 습득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였다[27].

최종열·정해주(2008)에 의하면 창업교육은 미래의 창업가를 위한 창업에 관한 지식, 태도 등은 물론 창업이 아니라도 피고용인으로 업무수행에 긍정적 자세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라고 넓게 정의된다[28]. 즉, 예비창업가로서의 경영지식, 태도, 가치관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창업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창업교육을 통해서 창업자는 사전에 다양한 실패를 학습함으로써 실제 시장에서의 실패를 줄일 수 있다[29]. 또한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의지 및 창업 행동을 높이고, 창업 성공을 도출하기도 하며, 사업계획서 작성 등과 같은 문서 교육보다는 기술 및 마케팅과 같은 창업 후 즉시 성과로 나타날 수 있는 분야가 더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30]. 결국 창업 교육을 통해 실무적인 업무를 습득하는 것이 핵심일 것이다.

창업자의 창업 이전 관련 실무 경험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동종업종에 대한 선행경험은 창업자가 시장, 제품에 관한 지식을 보유하고, 비즈니스 관계에서 상대방들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31]. 또한 성공적인 창업자는 자신의 과거 경험 업종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업종에서 해당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

게 된다[32].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들(박정기 2002; 정성한·김해룡 2001)에서 업종에 대한 과거의 경험은 창업자에게 위험 및 기회인식에의 평가, 관리에 중요한 내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창업자는 경험을 통하여 창업 해당사업에 관한 관련지식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창업성과를 긍정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4,33]. 조준화·김우성(2009)의 연구에서 창업자의 자질과 경험은 기업의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34], 권미영(2010)은 관련 산업 경험은 고객과 경쟁자, 그리고 산업에 대한 특성의 이해와 지식을 제공하므로 때문에 창업 후 기업 운영에 도움을 주는 것을 보여주었다[35].

2.4 창업성과

성과는 많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며 창업 성과는 기업의 경영의 결실로 나타나는 다양한 결과물로서 기업성과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창업성과를 비재무적 성과와 재무적인 성과로 나누어 창업자의 역량이 창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정량적 성과라 할 수 있는 재무적인 성과는 창업 후 매년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통하여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확인하였다[36].

그리고 기업의 성과는 객관적인 재무성과로서 명확히 드러나므로 일부 연구자들(White and Hamermesh 1981)은 사업전략 연구에 있어서는 수익성과 같은 재무적 지표를 우선적으로 채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7]. 반면에 Watson and Clark(1988)는 기업성과 측정에서 단일지표에 의한 측정오류를 줄이기 위해 변수를 복합적으로 측정할 것을 제의하였다[38]. Venkatraman and Ramanujam(1986)은 기업성과를 다차원적으로 파악하여, 재무적 지표로서 ROI, ROA, ROS, 또는 ROE를 사용하고, 비재무적 지표로 사업경영성과로서 시장점유율, 제품혁신 등을, 조직효과성으로서 만족도, 사회적 책임 등의 세 가지 수준으로 측정할 것을 제안하였다[39]. 본 연구에서는 창업 성과에 대해서 기존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매출액, 영업이익 등의 재무적 성과와 고객만족도, 단골고객 증가 등의 비재무적 성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위와 같이 기존 이론적 고찰을 통해 확인한 결과 창업자 특성은 창업성과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은 심리적 요소로 자기효능감이 높고 낮음에 따라 결과 변수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창

업자의 창업교육 이수과 실무경험에 따라 창업성가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기존 연구자들은 주장하였다.

따라서 기존 연구를 통해 확인 되어진 변수들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특성이 자기효능감과 창업성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실무경험과 창업교육이 창업자의 특성과 창업성가에 있어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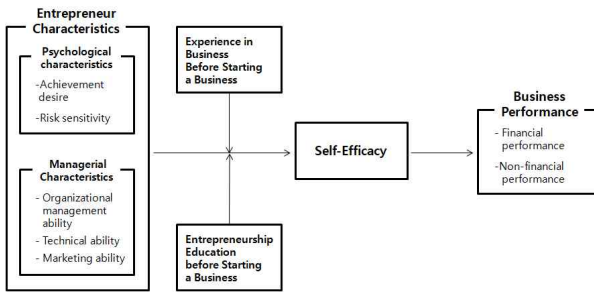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3. 연구 방법

3.1 설문지 구성 및 측정 항목

창업자 특성이 자기효능감과 창업성가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 구성에서 가설 검증을 위해 기존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다수의 측정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측정항목들은 모두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창업자 특성은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내외적 특성 및 성향으로 정의하고 이를 위해 내내성, 책임성, 성취감, 도전성, 과감성, 기회 포착성, 포상관리 경영자 책임성, 핵심 기술 보유, 운영능력, 기술적 해결 능력, 관측행사, 고객 관리 마케팅 투자 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일련의 행동들을 조직화 하고 실행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기 확신이라고 정의하고, 추진력, 열정, 개발능력의 변수로 측정하였으며, 창업성가는 창업 후 창업자의 역량과 활동을 통한 결과변수로 정의하고 매출액, 고용인원, 영업이익, 단골고객 증가, 고객만족도, 창업만족 등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조절변수로 실무경험의 유무, 창업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측정하였다.

3.2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설문 기간은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창업 후 1년 이상이 경과된 사업자로서 외식

업, 도소매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일반 독립점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온라인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총 300부가 배포되어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74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코딩 후 SPSS 14.0, AMOS 21.0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 (EFA : 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확인적 요인 분석 (CFA : confirmatory factor analysis)를 통해 타당성 검증을 하였으며, 경로 분석(path analysis)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 등을 평가하고 구조 방정식 모형과 연구가설들을 검증하였다.

4. 가설 검증

4.1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창업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남성은 192명(70.1%), 여성은 82명(29.9%)로 파악되었고, 연령은 주로 45~49세가 69명(25.2%), 50~54세가 45명(16.4%), 35~39세와 40~44세가 각각 36명(13.1%)으로 대부분의 응답자는 35세 이상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력은 4년제 대졸자가 159명(58.0%)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업종은 서비스업이 130개(47.4%), 도소매업이 111개(40.5%)로 확인되었으며, 운영기간은 5년 이상이 124개(45.3%)로 가장 많았다. 업체의 연매출은 5천만원 미만이 107개(39.1%), 1억원 미만이 74개(27.0%)로 독립점포의 특성인 영세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적 분포는 서울이 83개(30.3%), 경기 60개(21.9%), 부산 30개(10.9%) 등으로 대부분 광역시 위주로 분포되어 있다.

4.2 신뢰도 및 탐색적 요인분석

측정항목들의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Alpha 계수로 측정되었으며, 신뢰도 계수는 0.723 ~ 0.899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측정 항목들은 높은 신뢰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여 각 설문문항의 변수들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하였으며, 한 개의 항목을 제외하고 요인값이 모두 0.7 이상, 0.8 정도의 KMO 값을 보이고 있어 전반적으로 측정항목들이 적절한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Table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nstruct	GFI	AGFI	RMR	NFI	χ^2	df	p
Achievement desire	.937	.687	.045	.939	38.189	2	.000
Risk sensitivity	.971	.792	.041	.924	20.954	3	.000
Organizational Management ability	.955	.922	.049	.911	11.939	3	.000
Technical ability	.936	.910	.051	.904	84.634	2	.000
Marketing ability	.937	.802	.044	.919	34.998	4	.000
Self-Efficacy	.902	.899	.045	.894	66.833	4	.000
Financial performance	.911	.907	.042	.912	22.332	3	.000
Non-financial performance	.934	.916	.048	.938	34.821	3	.000

Table 2. Convergent Validity

Construct	CR	AVE
Achievement desire	.792	.664
Risk sensitivity	.819	.602
Organizational Management ability	.715	.501
Technical ability	.772	.531
Marketing ability	.821	.607
Self-Efficacy	.793	.562
Financial performance	.828	.706

4.3 확인적 요인분석 및 타당성 분석

구성개념과 측정항목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 분석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경로분석에서는 GFI(Goodness of fit Index; ≥ 0.9),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 0.9), NFI(Normal Fit Index; ≥ 0.9), CFI(Comparative Fit Index; ≥ 0.9),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 0.05),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0.05) 등을 이용하였다. Table 1에서 보듯이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성개념들은 모두 적절한 적합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3. Correlation and Discriminant Validity

Construct	Achievement desire	Risk sensitivity	Organizational Management ability	Technical ability	Marketing ability	Self-Efficacy	Businessl performance
Achievement desire	(.664)						
Risk sensitivity	.278	(.602)					
Organizational Management ability	.459	.389	(.501)				
Technical ability	.115	.254	.418	(.531)			
Marketing ability	.292	.283	.426	.136	(.607)		
Self-Efficacy	.497	.606	.608	.465	.580	(.562)	
Businessl performance	.165	.419	.444	.319	.355	.577	(.706)

주) Values in () indicate AVE.

또한 측정변수들의 집중타당성과 판별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집중타당성은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측정항목들의 일치성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개념 신뢰도(CR)와 평균분산추출(AVE) 값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구성개념들의 개념 신뢰도(CR)는 모두 0.7이상이며, 평균분산추출(AVE)값은 0.5~0.71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집중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판별타당성은 서로 다른 구성개념들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는 평균 분산추출(AVE)값이 상관계수의 제곱 값보다 클 경우 판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분석 결과 판별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Table 3 참고).

4.4 가설 검증

본 연구는 창업자 특성이 자기효능감에 따라 창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연구모형과 그에 따른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설정된 연구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공분산 구조방정식을 수행하였다. 공분산 구조방정식 모형은 확인적 요인분석의 값들을 통해 경로모형을 제시하고, 요인들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봄으로써 경로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전체적인 가설검증을 수행하는

모형이다. 일반적으로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이 함께 보장되어야 공분산구조방정식의 수행이 가능하다. 앞에서 탐색적 확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면서 타당성이 확인되어, 공분산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연구모형에 대한 전체 경로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χ^2 , df, p, χ^2/df , RMR, RMSEA, GFI, AGFI, NFI, CFI 지수를 사용하여 Table 4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특히 이러한 지수값에 대하여 wheaton et al. (1977)은 χ^2/df 는 5 이하면 수용할 만하며, 3 이하면 우수한 모델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고[40], Brown and Cudeck(1993)은 RMR과 RMSEA에 대하여 0.05 이하면 매우 우수한 모델이며, 0.08 이하면 우수한 모델, 0.1 이하면 보통인 모델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41]. 본 연구모형에 대해 공분산구조분석 결과, χ^2 값은 49.055, df(자유도)는 5, χ^2/df (전체 모형 적합도) 값은 3.811로 나타났으며, RMR은 0.046, RMSEA는 0.048, GFI는 0.955로 나타났고, AGFI는 0.749, NFI는 0.941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만족시키는 기준에 이상적으로 일치하거나 근사값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 모형은 높은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Table 4.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Model	χ^2	df	p	χ^2/df	RMR
Research Model	49.055	5	.000	9.811	.046
	RMSEA	GFI	AGFI	NFI	CFI
	.048	.955	.749	.941	.945

4.4.1 가설 1의 검증

가설 1은 창업자 특성이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창업자의 특성 중 심리적 요인 즉, 성취욕구와 위험감수성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관리적 특성 중 기술적 능력 및 마케팅 능력은 모두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나, 조직관리능력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본 결과 유의확률이 0.455으로 확인되어 $\alpha = 0.05$ 수준에서 기각되었다.

4.4.2 가설 2의 검증

가설 2는 자기효능감이 창업 성과에 비재무적, 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 것

Table 5. Result of Hypothesis1 Test

Hypothesis	Path	Path coefficient	t(CR)	P	Result
1-1	Achievement desire → Self-Efficacy	.114	3.491	.000	accept
1-2	Risk sensitivity → Self-Efficacy	.312	4.879	.000	accept
1-3	Organizational Management ability → Self-Efficacy	.096	0.746	.455	reject
1-4	Technical ability → Self-Efficacy	.217	3.839	.000	accept
1-5	Marketing ability → Self-Efficacy	.319	5.079	.000	accept

으로 자기효능감은 비재무적, 재무적 성과에 각각 유의확률 범위 내의 값으로 확인되어 채택되었다.

Table 6. Result of Hypothesis2 Test

Hypothesis	Path	Path coefficient	t(CR)	P	Result
2-1	Self-Efficacy → Financial performance	.931	10.22	.000	accept
2-2	Self-Efficacy → Non-financial performance	.948	9.102	.000	accept

4.4.3 가설 3의 검증

가설 3은 창업 전 실무 경험과 창업교육이 창업자 특성과 자기효능감 간의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 해보고자 창업 전 실무 경험과 창업교육을 조절변수로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AMOS의 다중집단분석을 통하여 비제약모델과 제약모델의 카이스퀘어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조절효과의 유무를 확인하였다. 카이스퀘어 차이가 3.84 이상으로 차이가 나면 유의 확률 수준에서 조절효과가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42].

Table 7에서 보듯이 창업 전 실무 경험에 대한 조절효과는 기술적 능력과 마케팅 능력이 자기효능감에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3-4, 가설 3-5만이 카이스퀘어 차이가 각각 5.216, 4.634로 확인되어 가설이 채택되었고, 나머지 가설들은 모두 카이스퀘어 값이 3.84 이하이거나 통계적 유의 수준을 확보하지 못해 기각되었다.

또한 창업교육이 창업자 특성과 자기효능감에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해본 결과 가설 3-6, 가설 3-7, 가설 3-9, 가설 3-10이 모두 카이스퀘어 값이 3.84 이상으로 확인되어 채택되었다. 즉, 창업교육은 성취욕구와 위험감수성, 기술적 능력, 마케팅 능력이 자기효능감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조직관리능력은 자기효능감에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Table 7. Result of Hypothesis3 Test

Verification of the moderating effect on Experience in Business		Experienced (n=148)		Not experienced (n=126)		Unconstrained Model x2 (df=470)	Constrained Model x2 (df=471)	x2 (df=1)	Result
Hypothesis	Path	Path coefficient	CR (t-value)	Path coefficient	CR (t-value)				
3-1	Achievement desire → Self-Efficacy	0.16	1.532*	0.056	0.515*	872.685	875.174	2.489	reject
3-2	Risk sensitivity → Self-Efficacy	0.318	2.491**	0.29	4.304***	872.685	873.969	1.284	reject
3-3	Organizational Management ability → Self-Efficacy	0.237	1.397	-0.076	-0.394	872.685	873.803	1.118	reject
3-4	Technical ability → Self-Efficacy	0.291	2.912***	0.155	2.428**	872.685	877.901	5.216	accept
3-5	Marketing ability → Self-Efficacy	0.395	3.435***	0.246	3.588***	872.685	877.322	4.637	accept
Verification of the moderating effect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Educated (n=81)		Not educated (n=219)		Unconstrained Model x2 (df=470)	Constrained Model x2 (df=471)	x2 (df=1)	Result
Hypothesis	Path	Path coefficient	CR (t-value)	Path coefficient	CR (t-value)				
3-6	Achievement desire → Self-Efficacy	0.129	1.208*	0.103	0.878*	867.566	872.41	4.844	accept
3-7	Risk sensitivity → Self-Efficacy	0.346	4.528***	0.268	1.998**	867.566	872.152	4.586	accept
3-8	Organizational Management ability → Self-Efficacy	0.057	0.284	0.016	0.111	867.566	869.548	1.982	reject
3-9	Technical ability → Self-Efficacy	0.429	3.501***	0.156	2.183**	867.566	873.064	5.498	accept
3-10	Marketing ability → Self-Efficacy	0.411	3.134***	0.294	3.916***	867.566	873.883	6.317	accept

5. 결론

본 논문의 주된 연구목적은 창업자 특성이 자기효능감과 창업성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창업 전 실무 경험과 창업교육이 창업자 특성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론적 고찰을 실시한 후 연구 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통해서 가설 검증을 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자 특성 중 심리적 특성인 성취 욕구와 위험 감수성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규명되었으며, 관리적 특성 중에는 기술적 능력과 마케팅 능력만이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황상규(2013), 양준환(201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데 사업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인 성취욕구와 위험 감수

성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게 되고, 이는 창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8,24]. 또한 창업자

의 마케팅 능력 및 기술적 능력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과 창업성파는 높아진다. 그러나 조직관리 능력은 창업 후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조직을 활용해 가는 능력으로 기존 연구에서는 조직관리 능력은 경영성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나 심리적 변수인 자기효능감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창업자는 성취욕구와 위험 감수성이 높고, 기술적 능력과 마케팅 능력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게 되고 이는 다시 창업성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창업자는 창업 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전하는 의지와 기술 및 마케팅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게 되어 이러한 심리적 요인들로 인해 창업 성과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창업 전 실무 경험과 창업 교육 이수에 대한 조절 효과를 확인해본 결과, 창업 전 실무 경험은 기술적 능력과 마케팅 능력에 대해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창업교육은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기술적 능력, 마케팅 능력에 대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신하성(2018)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는데,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자기효능감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창업 교육은 창업자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맞춤형 창업 교육을 해야 창업성과가 증대될 것이다[23]. 즉, 창업 교육을 추진함에 있어 성취욕구와 위험감수성을 높이는 창업교육 뿐만 아니라 기술과 마케팅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창업 교육이 이루어져야 창업 성과가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창업 전 실무 경험적 측면에서 기술적 능력과 마케팅 능력은 자기효능감을 높여주게 되어 창업 성과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원인은 창업 전 실무 경험은 창업자의 관리적 특성 부분 중 기술과 마케팅 능력을 높여주게 되고 이는 자기효능감을 제고하게 되어 창업 성과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창업 전 실무에서 기술적 측면과 마케팅적 측면에서의 사전 경험을 통해 자기효능감이 높아져 창업 성과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연구의 주요 관리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창업 전 실무 경험이 창업 성과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 결국 창업자의 창업 성과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창업 전 실무 경험이 없는 예비창업자 보다는 창업 전 실무 경험이 있는 예비창업자를 육성해야 창업성과가 극대화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실무 경험을 통한 동종 업계 창업일 경우 운영자금 및 기술개발비 등 다양한 창업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를 확립하고, 반면에 실무 경험이 없는 예비창업자에게는 재취업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하거나 또는 교육을 통해 일정기간 실무 경험을 쌓게 하거나 혹은 선배 창업자와의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최소한의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창업성과가 극대화 된다.

둘째, 창업성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창업교육에 대해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심리적 특성을 강화하고, 관리적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개발하고 집중해야 창업성과가 증대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예비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는 지표를 활용하여 심리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효과를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창업 후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기술 및 마케팅 기법을 중심으로 실무적 관점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관리적 시사점을 요약하면, 결국 창업자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지표를 개발하여 창업마인드, 목표 달성을 위한 성취욕구 증대 및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심리학적 교육을 강화시켜야 하며, 또한 기술과 마

케팅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실무적 창업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창업자의 창업 성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G. S. Jeon. (2017). A Study on the Influence of Founder Characteristics on the Performance of Establishment by Marketing Capabil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8), 59-68.
- [2] National Tax Service. 2017~2019 Business Status, <https://stats.nts.go.kr/month/month.asp>.
- [3] B. H. Yoo. (2013). Entrepreneurial Orientation in Service Industry's Effect on Business Performance. *Journal of the Korea Service Management Society*, 14(3), 55-78.
- [4] S. H. Jeong & H. R. Kim. (2001). An Exploratory Study on Success Factors in Small Business Startups. *The Journal of Small Business Innovation*, 4(2), 3-29.
- [5] M. K. Kang. (2019). *A Study on the Effects of Creative Characteristic on Perceived Desirability,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Master's Thesis of Dong Guk University.
- [6] S. B. Kang. (2012). *Report on corporation performance influenced by entrepreneur's motive, entrepreneurship, and advanced preparation*. Master's Thesis of Chung Ang University.
- [7] Erikson. (2002). Entrepreneurial capital: the emerging venture's most important asset and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7, 275-290.
- [8] W. R. Sandberg & C. W. Hofer. (1987). Improving new venture performance: The role of strategy, industry structure and the entrepreneur.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 5-28.
- [9] J. G. Kang & H. K. Jeong. (2006). *SME Policy Financing Effect Analysis*. Seoul : Bank of Korea, Institute of Finance and Economics.
- [10] J. S. Kyung & B. H. Lee. (2010). An Approach to Differentiate Business Support Policies for Reinforcement of Small-Medium Enterprises' Competency by Growth Stages. *THE KOREAN SMALL BUSINESS REVIEW*, 32(4), 57-79.
- [11] B. Y. Hwang. (2011). Determining Factors on Small Food Service Business Performan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and venturing*, 6(2), 51-73.
- [12] A. Bandur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13] J. A. Koo. (2010). Identifying Predictability of Learner's Self-Efficacy and Teaching Presence on Learning Outcomes in Utilizing Korean Language Digital Textbook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 and *Instruction*, 14(4), 787–806.
- [14] J. B. Kim.(2017). Influence of College Student' Leadership Behavior Characteristics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12), 351–357.
- [15] C. W. Park. (2016). A Study on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and Self-Efficacy on Knowledge Management: Focusing on Female CEO.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and venturing*, 11(6), 11–26.
- [16] J. W. Kim. (2013).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for Job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Workers. *Korean Comparative Government Review*, 17(3), 389–418.
- [17] B. H. Jeong. (2015). *Impacts of Shared Leadership on organizational trust and communicatio : with the focus on moder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Doctoral dissertation of Kyung Hee University.
- [18] S. K. Hwang. (2013). The Effects of Corporate Entrepreneurship on Self-Efficacy and Firm Performance in Small and Medium. *Journal of the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15(4), 345–356.
- [19] N. F. Krueger & D. V. Brazeal. (1994). Entrepreneurial potential and potential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 91–104.
- [20] Frédéric Delmar & Scott Shane. (2003). Does business planning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new ventur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4(12).
- [21] S. K. An. (2016).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institutional support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Doctoral dissertation of Chung Ang University.
- [22] D. Y. Chung, J. H. Yang and C. W. Kim. (2013). Influence of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Particip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28(5), 543–572.
- [23] H. S. Sin. (2018). The Effects of Potential IT Entrepreneurs` 5 Personality Factors on Personal Innovation, Self-Efficien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Korean Journal of Computer and Accounting*, 16(1), 111–133.
- [24] J. H. Yang. (2015).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Motivation.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30(4), 93–115.
- [25] Gibb. (2002). In Pursuit of a New 'Enterprise' and 'Entrepreneurship' Paradigm for Learning: Creative Destruction, New Values, New Ways of Doing Things and New Combinations of Knowledge.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Reviews*, 4(3).
- [26] Y. C. Shin. (2007). *Research of teachers and students' recognition about operating bizcool in technical high schools*.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27] T. N. Garavan & O. Barra. (1994).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mes: A Review and Evaluation Part 1.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18(8), 3–12.
- [28] J. Y. Choi & H. J. Jeong. (2006). A Study on Efficient supporting Service for BI's Tenant. *Ju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13(4), 167–190.
- [29] McGrath. (1999). Falling Forward: Real Options Reasoning and Entrepreneurial Failure.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4(1), 13–30.
- [30] J. H. Jung. (2014). *A study on the effects of start-up education program on the entrepreneurship and the start-up and management performance*. Doctoral dissertation of Kon Kok University.
- [31] A. C. Cooper, F. J. Gimeno-Gascon & C. Y. Woo. (1994). Initial Human and Financial Capital as Predictors of New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9, 371–395.
- [32] B. J. Bird. (1993). *Demographic Approaches to Entrepreneurship: The Role of Experience and Background*. JAI Press.
- [33] J. K. Park. (2002). *An Empirical Study on the Success Factors of a Small Business Starting-up*. Master's Thesis of Dong Eui University.
- [34] J. H. Cho & W. S. Kim. (2009). A Study of Performance Factors on the Business Incubator Corporate.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2(1), 289–308.
- [35] M. Y. Kwun. (2010).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technological capabilities and networks on firm performance of technology-based start-ups*. Doctoral dissertation of Pu San University.
- [36] A. R. Lim. (2015). *The effect of youth entrepreneurs' competence on entrepreneurial behavior and entrepreneurial performance*. Doctoral dissertation of Cho Sun University.
- [37] R. E. White & R. G. Hamermesh. (1981). Toward a model of business unit performance: An integrative approa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0(6).
- [38] D. Watson, L. A. Clark & A. Tellegen.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6), 1063–1070.
- [39] N. Venkatraman & R. Vasudevan. (1986). Measurement of Business Performance in Strategy Research: A Comparison of Approaches. *Academy of Managemen Review*, 11(4), 801–814.
- [40] B. Wheaton, B. Muthen, D. F. Alwin & G. Summers. (1977). Assessing Reliability and Stability in Panel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8, 84–136.
- [41] M. W. Brown & R. Cudeck.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136–162.
- [42] J. H. Kim. (2019). *A Study on the Effect of Catering*

Consultant Capability on Small Business Consulting Satisfac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Doctoral dissertation of Sun Chon National University.

이 천 희(Chun-Hee Lee)

[장학원]



- 2001년 2월 : 고려대학교 물리학과(학사)
- 2013년 2월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EMBA)
- 2016년 3월 ~ 현재 :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수료)
- 관심분야 : 유통, 브랜딩, 마케팅

· E-Mail : innopartners@gmail.com

전 달 영(Dal-Young Chun)

[장학원]



- 1981년 2월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학사)
- 1984년 8월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MBA)
- 1990년 12월 : University of Alabama(Ph.D. in Marketing)
- 1994년 3월 ~ 현재 : 충북대학교 경영

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유통, 마케팅

· E-Mail : dychun@cbnu.ac.kr